

#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연구의 경향과 과제

## Trends Analysis of Reading Research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김 종 성(Jong-Sung Kim)\*

### <목 차>

- |                  |                     |
|------------------|---------------------|
| I. 서론            | III. 연구 주제와 방법 현황   |
| 1. 연구의 목적        | 1. 주제별 연구 현황        |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연구 방법 현황         |
| 3. 선행연구          | IV. 발전을 위한 과제       |
| II. 연구 추이와 형태    | 1. 독서론 연구의 확대       |
| 1. 연도별 연구 현황     | 2. 독서 이슈의 연구 주도성 강화 |
| 2. 연구 형태와 연구자 현황 | 3. 연구 방법론의 적실성 제고   |
|                  | V. 결론               |

### 초 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분야 독서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고 연구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창간호부터 2012년까지 게재된 학술논문 191편을 분석하였다. 학회지, 연도, 연구자, 연구비, 주제, 연구방법 등을 기준으로 논문 현황을 분석하였고 연구에서 나타나는 내용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살펴보았다. 연구 논문 분석을 토대로 독서 연구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독서론 연구의 확대, 사회적 독서 이슈에 대한 연구 주도성 강화, 연구 방법론의 적실성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독서, 독서지도, 독서교육, 연구경향, 독서프로그램, 독서치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of reading research in Korea. A total of 191 research articles were selected from 3 journal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rticles were analyzed in the aspects of research subjects, research methods, author types, and research funds. The writer discussed the problems shown in the articles and suggested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reading research.

Keywords: Reading, Reading guidance, Reading education, Research trend, Reading program, Bibliotherapy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js1010@kmu.ac.kr)

• 논문접수: 2013년 8월 13일 • 초심사: 2013년 8월 28일 • 게재확정: 2013년 9월 6일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독서만큼 전통적인 주제를 찾아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고래로 독서는 문헌정보학의 교육과 연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큰 부침 없이 자리를 지켜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낡은 것’이라는 이미지를, 또 다른 면에서는 ‘쉬운 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소비 패턴이 바뀐 정보기술의 시대에도 독서는 세상의 관심과 학문적 주목에서 멀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더욱 더 다양한 관심과 탐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독서는 결코 ‘낡은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다. 여전히 ‘새로운 것’이며 쉽게 풀리지 않는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서의 이런 성격을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독서와 관련한 연구는 최근에 무척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연구의 주제나 접근 방법 등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의 발전 과정과 연계되어 독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도 하고, 교육이나 문화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독서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정보통신 매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독서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도 한다. 이런 복합적인 사회적 상황 속에서 독서 문제를 다루는 학문적 접근은 더욱 더 확장되고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독서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고 그 발전적인 방향을 탐색하는 연구는 무척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배경에서 출발하는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표방하였다. 첫째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수행된 독서 연구의 현황과 경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짧지 않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의 역사에서 독서라는 주제는 어떻게 다루어졌으며, 어떤 연구 성과를 거두었는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 사회의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독서연구의 과제와 방향을 탐구하는 것이다. 문헌정보학의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독서문화 발전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독서 연구의 주제나 접근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고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기본적으로 독서라는 주제를 대하는 문헌정보학적 인식과 실천의 현실을 점검하고 발전을 위한 방향을 탐색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에서는 독서를 주제로 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생산된 학술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독서에 관한 연구는 교육학, 국어교육학, 문학, 아동학 등의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연구 대상 논문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검토해야하는 이 연구의 성격상 모든 분야의 독서 연구를 다루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헌정보학 분야로 제한하였다.<sup>1)</sup> 그리고 비교적 일정한 형식과 내용적 수준을 확보한 학술논문을 통해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학위논문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 관련 학술논문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표적 학회지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다른 학회지에도 독서 관련 논문이 게재되기도 하였지만 그 수가 극히 미미하여 제외하였다. 일차적으로 연구 대상 논문을 추출하기 위하여 3개 학회지를 창간호부터 2012년 호까지 직접 조사하여 독서 관련 논문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DBPIA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누락된 논문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논문은 기본적으로 제목이나 내용을 통해 독서를 다루고 있는 논문으로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다만 일부 논문은 쉽게 판정하기 어려워 적지 않은 고민을 하기도 하였다. 가령 제목에 독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내용은 독서 프로그램이나 독서 운동에 관계된 논문과 북스타트 프로그램이나 한 도시 한 책 운동을 다룬 논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도서관서평 매체를 다룬 연구의 경우 독서행태 등과 관련된 연구는 포함하였지만 도서관 자체나 서평매체 자체를 다룬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런 논문을 독서 관련 연구에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책이나 서평매체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독서 활동을 전제로 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애매한 사례는 이 연구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연구 대상으로 추출한 논문은 모두 191건이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191건의 학술 논문을 학회지, 발표 연도, 주제, 연구방법, 저자, 연구 기반 등의 기준에 따라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논문의 내용과 접근 방법 등의 경향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전반적인 연구의 문제를 탐구하였고 독서 연구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탐구하였다.

김관준의 연구에서는 독서 관련 단행본의 목차 체계를 참고하여 전체 하위 주제 영역을 독서 및 독서교육 일반, 독서자료, 독서교육 방법 및 실제, 독서정책 및 독서운동, 독서기관 및 시설, 독서자료 등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sup>2)</sup> 하지만 이 구분은 단행본의 내용 체계에 따라 주제를 분류하였

1) DBPIA 데이터 검색을 통해 1900년부터 2011년까지 학술지, 잡지 등에 게재된 독서 관련 기사를 저자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분석한 김관준의 논문에서는 독서 관련 기사가 모두 1,465건으로,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독서 관련 기사를 키워드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분석한 변희균의 논문에서는 독서 관련 기사가 모두 1,574건으로 나타났다. 김관준, “저자 프로파일링 기법을 이용한 국내 독서 연구 영역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2권, 제4호(2011. 12), pp.21-44; 변희균, “키워드 프로파일링을 통한 분야별 국내독서 연구방향 분석,” 한국독서교육학회지, 제1권, 제1호(2013. 6), pp.51-66.

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 그대로 차용하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판단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논문의 주제를 먼저 추출한 후 주제를 구분하여 <표 1>과 같이 모두 10개의 하위 주제 영역을 설정하였고, 그에 따라 논문을 구분하였다. 성격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주제가 있고 관점에 따라 상하관계라고 할 수 있는 주제가 있지만 전체 연구 경향을 효과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10개 주제로 설정하였다.

<표 1> 연구를 위한 주제 구분

주제 구분	주요 내용
독서론	독서의 역사, 독서의 철학, 독서 이론 등
독서자료	독서목록, 자료에 따른 독서 효과 등
독서행태	독서태도, 독서실태, 독서 선호 등
독서프로그램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독서치료	이론과 사례, 연구동향, 목록개발 등
독서진흥	정책, 외국 사례, 장애인 독서진흥 등
독서운동	한 도시 한 책 운동, 북스타트 운동 등
학교독서교육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독서교육 수업, 학습독서 등
독서평가	평가도구, 독해력 측정 등
독서지도교육론	독서지도자 양성, 교육 방법 등

### 3. 선행연구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한 학문 분야의 연구경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그 형식과 체제에서 선행연구의 성과들에 의지하는 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헌정보학 안에서 특정 주제 분야의 연구경향을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 논문들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sup>3)</sup>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주제 영역인 독서 영역에서 연구경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도 찾을 수 있다. 최근에 발표된 김관준의 연구와 변희균의 연구를 들 수 있다.<sup>4)</sup> 이 연구들은 프로파일링 기법

2) 김관준, 전계논문, pp.24-25.

3) 김정현, "한국의 자료조직 분야 연구동향: 1970~20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11. 9), pp.149-164; 설문원, "기록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2권, 제3호(2012. 9), pp.203-232; 유사라, "메타데이터 주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2호(2010. 6), pp.404-425; 윤희운, "한국 도서관경영 연구의 성과와 한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11. 9), pp.25-44; 이소연, "국내 전자기록 연구의 동향 분석: 회고와 전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2011. 6), pp.8-31; 장윤미·정연경, "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1호(2013. 3), pp.24-44; 최재희, "국내의 기록물 평가론 연구 동향: 회고와 전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1호(2011. 3), pp.7-22; 한복희, "이용자 연구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도서관학, 제23권(1992), pp.107-125; 공정자, "문헌정보학 분야의 어린이 서비스 관련 연구경향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3호(2011. 8), pp.303-325; 김종성, "문헌정보학 분야 어린이서비스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제2호(2013. 6), pp.51-75; 김종성,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2호(2013. 6), pp.71-91.

을 이용하여 독서 분야의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것으로 우리나라 독서 연구의 전체적인 지형을 보여 준다. 이 두 연구 모두 문헌정보학 분야뿐만 아니라 전 학문 분야의 독서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독서 관련 연구의 전체 지형 속에서 문헌정보학의 위치를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술 논문과 기타 연속간행물의 기사를 동일하게 평가한 문제나 다른 매체에 게재된 동일한 논문이 중복적으로 계산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독서 관련 담론의 지형을 정교하게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저자와 키워드의 프로파일링을 이용한 거시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독서 연구의 내면적인 실재를 들여다 보기에는 한계를 지니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독서 연구 논문들을 좀 더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는 접근법을 통해 거시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면에서 연구의 차별성과 의미를 확보할 수 있다.

독서 주제를 모두 포괄한 것은 아니지만 독서치료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경향을 조사한 황금숙의 연구도 이 연구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라고 할 수 있다.<sup>5)</sup> 황금숙의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2004년까지 발표된 모든 독서치료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한 연구로서 독서치료 연구의 역사와 전개과정을 쉽게 이해하게 하는 성과이다. 특히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논문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문헌정보학 이외의 학문 분야에서 생산된 성과물도 포함하고 있어 한 주제 분야에 대한 완전한 연구 지형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할 만하다. 이 연구는 독서치료를 독서 영역에 포함하여 다루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황금숙의 연구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 II. 연구 추이와 형태

### 1. 연도별 연구 현황

연도별 연구 현황을 정리한 <표 2>를 보면 독서와 관련한 연구논문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3년에 전체 13편의 독서 논문이 발표되어 처음으로 두 자리 수를 넘어섰다. 그 이후 2004년을 제외하면 매년 10편 이상의 독서 논문이 생산되었고, 그 중 다섯 해는 연간 20편 이상의 논문이 생산되었다.

이 시기에 독서 논문이 증가한 것은 전체 학술논문의 증가 추세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 3>을 통해 2003년부터 독서 논문이 전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 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3년 이전까지는 전체 학술 논문에서

4) 김관준, 전계논문: 변희균, 전계논문.

5) 황금숙, "국내 독서치료 연구동향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5. 3), pp.117-130.

독서 논문이 차지한 비중은 2%를 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2003년에 갑자기 6.3%로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2005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5%를 웃도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요컨대 2000년대 이후 전체 학술 논문이 증가한 흐름 속에서 독서 분야의 논문 증가 현상은 더 두드러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2〉 연도별 논문 현황

연도 학회지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비율 (%)
한국문헌정보 학회지	4	1	1	3	4	5	5	9	6	6	3	7	5	59	30.9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6	2	1	8	5	7	6	9	16	10	9	5	12	96	50.3
한국비블리아 학회지	4	·	1	2	·	1	10	3	·	·	2	9	4	36	18.8
계	14	3	3	13	9	13	21	21	22	16	14	21	21	191	100
비율(%)	7.3	1.6	1.6	6.8	4.7	6.8	11.0	11.0	11.5	8.4	7.3	11.0	11.0	100	

2003년 이후 독서 논문이 크게 늘어난 배경은 무엇인가? 김관준은 이 시기 독서 관련 연구가 크게 늘어난 배경을 국내 대학입시에서 논술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그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정에서 독서에 대한 연구도 같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하였고,<sup>6)</sup> 변회균은 김관준의 설명을 인용하였다.<sup>7)</sup>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학입시에서 논술이 처음 시행된 것은 1986년의 일이고, 2년 후 폐지되었다가 1994년 대입수능시험과 함께 다시 도입되었으며, 1997년부터는 대학별 전형 방법으로 축소되어 현재까지 존속되어 오기 때문이다.<sup>8)</sup>

논술 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입시의 변화가 2003년 이후 독서 연구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면이 있으나 그 배경은 더욱 더 총체적인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독서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증폭되었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서비스가 활발해지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독서 관련 프로그램의 요구가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맥락에서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독서와 관련성이 많은 학교도서관 분야와 어린이서비스 분야의 연구에서도 2003년부터 연구논문의 수가 크게 늘어난 사실이 이런 설명에 힘을 실어준다.<sup>9)</sup> 정리하면 1990년대 이후 독서와 어린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도

6) 김관준, 전계논문, p.31.

7) 변회균, 전계논문, p.57.

8) 송현숙, “〈신년기획-대학입시 현장보고서 2013〉 대입 논술시험의 역사,” 경향신문, 2013. 1. 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82212355&code=21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82212355&code=210100)〉 [인용 2013. 8. 7].

9) 김종성, “문헌정보학 분야 어린이서비스 …,” pp.55-56; 김종성,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 pp.74-76.

서관 서비스의 확장 과정에서 어린이도서관의 설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시행 등 구체적인 전기가 만들어진 2003년부터 어린이서비스, 학교도서관, 독서 등의 주제와 관련한 연구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연도별 총 논문 수 대비 독서 논문 현황

학회지	구분	연도														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독서 논문	4	1	1	3	4	5	5	9	6	6	3	7	5	59	
	총 논문 수	437	47	59	56	59	59	75	70	78	67	68	74	62	1,211	
	비율(%)	0.9	2.1	1.7	5.4	6.8	8.5	6.7	12.9	7.7	9.0	4.4	9.5	8.1	4.9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독서 논문	6	2	1	8	5	7	6	9	16	10	9	5	12	96	
	총 논문 수	399	63	63	65	77	74	75	89	88	86	65	71	81	1,296	
	비율(%)	1.5	3.2	1.6	12.3	6.5	9.5	8.0	10.1	18.2	11.6	13.8	7.0	14.8	7.4	
한국비블리아학회지	독서 논문	4	·	1	2	·	1	10	3	·	·	2	9	4	36	
	총 논문 수	118	19	27	24	25	25	30	23	20	61	53	68	67	560	
	비율(%)	3.4	·	3.7	8.3	·	4.0	33.3	13.0	·	·	3.8	13.2	6.0	6.4	
계	독서 논문	14	3	3	13	9	13	21	21	22	16	14	21	21	191	
	총 논문 수	1,266	174	194	205	219	217	241	244	246	281	246	278	273	4,084	
	비율(%)	1.1	1.7	1.5	6.3	4.1	6.0	8.7	8.6	9.0	5.7	5.7	7.6	7.7	4.7	

학회지별로 독서 논문을 게재한 현황을 보면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의 절반 이상이 이 학회지를 통해 발표되었다. 전체 논문 수에 대한 비중에서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무척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 이후 전체 논문에서 독서 논문이 10% 이상을 차지한 해가 여섯 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는 10%를 넘어선 경우가 한 해밖에 되지 않아 독서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가장 적은 논문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6년부터는 다른 학회지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경우 전체 논문 수에 비교한 비율에서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회의 정책이나 학회지 편집 방침에 따라 특정 주제의 논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기 때문에 학회지에 따른 독서 논문의 게재 현황은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 다만 연구자들이 독서 논문을 투고할 때 선호하는 매체가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 2. 연구 형태와 연구자 현황

〈표 4〉를 통해 독서 논문의 연구 형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91편 중 149편(78%)은 개인연구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42편(22%)은 공동연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학교도서관 연구경향(77.5%/22.5%)과 유사하지만, 어린이서비스 연구경향(58.4%/41.6%), 문헌정보학분야 현장연구 논문의 연구경향(69.7%/30.3%)과 비교하면 공동연구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0)</sup>

개인연구로 수행된 논문 149편을 연구자의 신분에 따라 나누어 보면 교수가 가장 많은 109편(57.1%)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서와 사서교사 등 현장 인력이 19편(9.9%), 강사가 17편(8.9%)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대학원생이 생산한 논문도 4편(2.1%)으로 나타났다.

공동연구로 생산된 논문 중에서는 교수, 강사, 대학원생 등 교육인력간의 공동연구가 교육인력과 사서, 사서교사 등 현장인력의 공동연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 영역의 성격상 현장인력과 교육인력이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하면 더욱더 좋은 연구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향은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연구 중에서도 현장 인력에 의해 수행된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은 현장에서 독서와 관련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구는 문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현장 인력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 연구 형태별 논문 현황

구분	신분	주제	독서									계	비율 (%)	
			독서론	독서 자료	독서 형태	독서 프로그램	독서 치료	독서 진흥	독서 운동	학교 독서 교육	독서 평가			독서 지도 교육론
개인 연구	교수		12	5	16	24	16	4	12	13	3	4	109	57.1
	강사		2	1	1	1	7	1	1	1	1	1	17	8.9
	대학원생		·	·	·	·	2	·	1	·	1	·	4	2.1
	사서, 사서교사		·	·	4	6	7	1	·	1	·	·	19	9.9
	소 계		14	6	21	31	32	6	14	15	5	5	149	78.0
공동 연구	교육인력 간		1	2	3	5	6	3	·	3	·	·	23	12.0
	교육+현장인력		·	·	3	7	8	1	·	·	·	·	19	10.0
	소 계		1	2	6	12	14	4	·	3	·	·	42	22.0
합 계			15	8	27	43	46	10	14	18	5	5	191	100
비율 (%)			7.9	4.2	14.1	22.5	24.1	5.2	7.3	9.4	2.6	2.6	100	

10) 김종성,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 p.76; 김종성, “문헌정보학 분야 어린이서비스 ...,” p.57; 정재영, 박진희,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장연구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2호(2011. 6), p.183.



주제별로 보면 독서프로그램, 독서치료, 독서진흥 등의 분야에서 개인연구에 비해 공동연구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제 분야의 연구가 주로 현장에서의 실행과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독서프로그램과 독서치료의 경우는 현장 인력인 사서와 사서교사에 의해 개인적으로 수행된 건수도 다른 주제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독서론, 독서자료, 독서운동, 독서평가, 독서지도교육론 등은 교수진에 의해 개인연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의 성격상 이론적인 경향이 강하고, 문헌에 기반을 두는 연구를 해야 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 생산에 참여한 연구자를 조사한 결과 191편의 논문 생산에 참여한 연구자는 모두 107명으로 나타났다. 독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저변은 무척 넓게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이 분야를 전공으로 한다고 하기 어려운 연구자들도 다수 독서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의 성격상 타 분야 연구자나 현장 인력이 수행하기에 비교적 용이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독서 연구의 내용을 더욱 더 다양하게 해 주는 면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양과 질의 측면에서 발전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인연구와 공동연구를 합쳐 3건 이상의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두 23명으로 나타났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상위 연구자들의 높은 연구 점유율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연구논문을 생산한 K1의 경우 독서 연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1, J1 등의 연구자들이 비교적 최근에 대학에 자리를 잡은 신진 교수라는 점에서 보면 이들이 향후 독서 연구에서 많은 성과를 축적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5> 연구자별 논문 현황

연구자	연구 참여 횟수			신분	연구자	연구 참여 횟수			신분
	개인 연구	공동 연구	계			개인 연구	공동 연구	계	
K1	13	3	16	강사→교수	Y2	4	·	4	강사→교수
H1	4	7	11	교수	L5	1	3	4	교수
B1	9	1	10	교수	H2	2	2	4	교수
Y1	9	·	9	교수	K4	3	·	3	사서
J1	6	3	9	사서→교수	K5	1	2	3	교수
H2	6	2	8	교수	P1	·	3	3	사서
L1	7	·	7	교수	L6	3	·	3	교수
L2	5	2	7	강사	L7	3	·	3	교수
K2	6	·	6	교수	J2	2	1	3	교수
L3	4	1	5	사서교사→교수	C1	3	·	3	사서교사
L4	5	·	5	교수	C2	1	2	3	사서교사
K3	4	·	4	사서→교수					

\* 그 밖의 연구자 현황:개인연구 2건: 10명; 개인 1건+공동 1건: 7명; 공동연구 2건: 6명; 개인연구 1건: 20명; 공동연구 1건: 41명

전체 논문 191편 중 70편(36.7%)은 연구비를 받아 연구과제로 수행되었거나 학위 청구를 위해 생산된 논문으로 외적 생산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 논문의 약 29.9%(57편)는 연구비를 지원받아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의 6.8%(13편)는 석사 및 박사논문에서 출발한 논문으로 나타났다. 연구비를 받은 논문 57편 중에서 71.9%에 해당하는 41편은 대학의 교내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논문은 7%인 4편에 불과하여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수행된 연구는 전체의 15.8%인 9편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서비스 분야에 비해서 보면 크지 않지만 독서 연구에서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좋은 연구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석·박사 논문을 기반으로 한 독서관련 논문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실제 대학원에서 생산되는 논문 중에서 독서 관련 논문이 적지 않은 데 비해 학회지에 투고되는 비율은 낮다고 할 수 있다. 학회의 방침이나 규정에 따라 석·박사논문이 학술논문으로 발표되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현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학위논문의 경우 현장의 실제적인 사례를 담고 있는 연구가 많고 고유성 있는 현장 데이터를 포함하는 연구가 많다는 점에서 학술논문의 유통 구조 속에서 그 성과를 확산시키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sup>12)</sup> 이런 맥락에서 학위논문도 학회지를 통해 발표될 수 있도록 학회지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6> 논문 생산 기반(연구비, 학위논문) 현황

구분	영역	독서론	독서 자료	독서 행태	독서 프로그램	독서 치료	독서 진흥	독서 운동	학교독서교육	독서 평가	독서 지도 교육론	계	비율 (%)
연구비	대학 교내연구비	2	·	7	16	4	2	3	3	1	3	41	71.9
	한국연구재단	·	·	1	·	3	·	·	·	·	·	4	7.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	1	7	·	1	·	·	·	·	9	15.8
	기타	·	·	·	·	1	2	·	·	·	·	3	5.3
	소 계	2	·	9	23	8	5	3	3	1	3	57	100
학위 논문	박사 논문	·	·	1	2	6	·	·	·	·	·	9	69.2
	석사 논문	·	1	·	2	·	·	·	1	·	·	4	30.8
	소 계	·	1	1	4	6	·	·	1	·	·	13	100
합 계		2	1	10	27	14	5	3	4	1	3	70	

11) 어린이서비스 분야의 연구에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은 전체 연구비 수주 논문 44편의 절반인 22편으로 나타났다. 김종성, “문헌정보학 분야 어린이서비스 …,” p.60.

12) 최근에 창간된 『한국독서교육학회지』에는 대학원(졸업)생과 현장 사서들에 의해 생산된 독서 관련 논문이 다수 게재되었는데 무척 다양하고 풍부한 연구 성과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 Ⅲ. 연구 주제와 방법 현황

#### 1. 주제별 연구 현황

독서 연구에서 주제별 연구 현황을 보면 특정 주제 분야에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독서치료와 독서프로그램 영역이 독보적으로 많은 논문이 생산되는 분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뒤를 독서행태 영역이 잇고 있다. 이 세 영역을 합하면 전체 논문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영역은 모두 1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보면 독서 연구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분야는 독서치료, 독서프로그램, 독서행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독서치료 영역도 독서프로그램의 한 갈래이기 때문에 우리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테마는 도서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독서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회지에 따른 주제별 연구 현황의 차이는 눈에 띄일 정도로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독서행태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독서론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독서자료는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상대적으로 많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학회지의 성향이나 연구자의 학회지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표 7〉 주제별/학회지별 논문 현황

연도 학회지	독서 론	독서 자료	독서 행태	독서 프로 그램	독서 치료	독서 진흥	독서 운동	학교 독서 교육	독서 평가	독서 지도 교육론	계	비율 (%)
한국문헌정보 학회지	1	1	15	14	16	3	6	3	·	·	59	30.9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11	2	12	20	22	5	7	11	2	4	96	50.3
한국비블리아 학회지	3	5	·	9	8	2	1	4	3	1	36	18.8
계	15	8	27	43	46	10	14	18	5	5	191	100
비율(%)	7.9	4.2	14.1	22.5	24.1	5.2	7.3	9.4	2.6	2.1	100	

〈표 8〉을 통해 시간적 흐름에 따라 주제별로 특징적인 경향이나 추이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반적으로 2003년 이후부터 연구 논문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가장 비중이 높은 독서치료와 독서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독서치료의 경우 2003년부터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수의 논문이 지속적으로 생산되었으며, 독서프로그램 영역에서는

다소간의 편차를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생산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영역이 지난 10여 년간 독서 분야 연구의 외형적 성장을 이끌어 온 중심 주제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서진흥 영역과 독서행태 영역의 논문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주로 생산되었고 독서운동 영역의 논문은 주로 2003년부터 2009년 사이에 생산된 것을 알 수 있다. 독서운동 영역의 경우 정부나 시민단체에서 주도하는 독서운동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여 연구가 수행되는 경향이 있어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가 뚜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독서교육영역의 연구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 주제별/연도별 논문 현황

주제	연도														비율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독서론	4	·	1	·	2	·	1	1	3	1	·	1	1	15	7.9
독서자료	2	·	1	·	·	·	2	·	1	·	·	2	·	8	4.2
독서행태	2	·	·	1	1	·	3	5	3	3	2	4	3	27	14.1
독서프로그램	2	2	1	3	1	4	2	5	5	3	3	5	7	43	22.5
독서치료	2	1	·	4	3	6	5	5	5	3	4	4	4	46	24.1
독서진흥	·	·	·	·	·	2	·	2	·	2	·	3	1	10	5.2
독서운동	·	·	·	2	2	1	2	1	3	2	·	·	1	14	7.3
학교독서교육	1	·	·	3	·	·	4	1	2	1	2	1	3	18	9.4
독서평가	1	·	·	·	·	·	2	·	·	·	1	1	·	5	2.6
독서지도교육론	·	·	·	·	·	·	·	1	·	1	2	·	1	5	2.6
계	14	3	3	13	9	13	21	21	22	16	14	21	21	191	100
비율 (%)	7.3	1.6	1.6	6.8	4.7	6.8	11.0	11.0	11.5	8.4	7.3	11.0	11.0	100	

주제별 연구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독서 연구의 경향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독서론 영역은 전체 15편의 논문 중에서 독서의 철학에 대해 탐구한 논문이 7편으로 가장 많고 독서의 역사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 4편으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독서철학은 이만수, 변우열, 김수경 등이 주도하고 몇몇 연구자가 참여하는 구도인 반면 독서역사는 4편 모두 윤금선 한 연구자에 의해 발표되었다. 윤금선은 기본적으로 문헌정보학을 배경으로 하는 학자는 아니지만 문헌정보학 분야 이외의 매체에 발표한 독서사 논문을 포함하여 독서사 연구에서 집적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도 독서의 연구경향, 독서의 사회학적 현상, 독서의 일반적 가치와 의미 등이 독서론 영역에서 연구되었다.

전체적으로 논문이 많이 생산되지 않은 독서자료 영역에서는 특별히 집중되는 주제를 찾아보기 어렵다. 주로 만화, 전자책 등 특정 형태의 도서가 가지는 독서효과를 검토하거나 일반적인 독서자료의 효용을 검증하는 연구가 있으며 필독서목록이나 책과 영상자료의 효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

독서행태 영역에서는 특별히 집중되는 연구 테마는 없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독서행태와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27편 중 독서자료의 선택경향이나 선호경향(3편), 독서부진아(2편), 독서태도(3편), 반복독서(3편), 성격유형에 따른 독서행태(2편), 성장시기별 독서행태(2편), 독서행태에 따른 독서효과(2편) 등의 연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독서행태와 관련한 연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독서프로그램은 가장 일반적인 연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서프로그램의 다양성 만큼이나 연구 테마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책 읽어주기(2편), 독서교실(3편), 독서캠프(4편), 독서토론(3편), 독서회(2편), 북스타트(3편), 영어독서(2편) 등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많이 개설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도서관(중)에 따른 독서프로그램 연구, 청소년, 소외어린이, 시각장애아 등 대상에 따른 독서프로그램 연구도 간간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도 다양한 관점과 전략으로 독서프로그램의 방법과 효과를 제시하는 연구가 독서프로그램 영역의 연구에 포함되었다.

독서치료 영역은 2000년대 이후 독서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연구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연구자들이 풍성한 연구 성과를 생산하고 있다. 독서치료 영역의 논문은 노화, 마음 상함, 비행청소년, 사회성 발달문제, 스트레스, 역기능 가정, 우울증, 읽기부진아, 자아 문제, 자존감, 정서, 치매, 진로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그 대상도 주부, 대학생, 교정시설 재소자, 초등학생, 중년 여성, 일반 성인, 조기퇴직자, 중년 남성, 노인, 청소년, 독서부진아 등 무척 다양하다. 거의 모든 형태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 밖에도 독서치료의 연구동향(4편), 일반 이론(5편), 목록 개발(3편) 등에 관한 이론적 연구도 풍부하게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영역답게 그 다양성과 포괄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서진흥 영역에서는 특정한 연구 테마의 집중이나 경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온라인을 통한 독서진흥 방법, 장애인을 위한 독서진흥 시스템, 외국의 독서진흥 정책, 일반적인 독서진흥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의 논문이 생산되었다.

독서운동 영역에서는 전체 14편의 논문 중 한 도시 한 책 운동에 관한 논문이 9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9편의 논문에는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과 국내의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이 거의 반반씩 포함되었다. 한 도시 한 책 운동에 대한 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연구자는 윤정옥과 이용재이다. 특히 윤정옥은 미국의 독서운동을 소개하는 논문을 포함하여 독서운동에 관한 논문만 7편이나 발표하여 이 주제의 연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의 독서운동 영역 연구에는 공공도서관의 일반적인 독서운동에 관한 연구, 독서운동 단체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독서운동으로서 북 스타트를 다룬 연구는 한 편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 스타트에 관한

연구는 주로 도서관에서 시행되는 북스타트 관련 영유아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독서교육 영역의 연구는 주로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독서교육 활동과 관련이 있는 논문들이다. 학교도서관 독서교육의 다양한 국면들과 학교의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다루는 논문들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학교 독서교육 정책이나 독서 수업 등 일반 공공도서관의 독서와는 성격이 크게 다른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평가 영역에는 독서평가를 위한 도구의 개발이나 평가도구에 대한 소개 등을 다룬 연구가 있으며, 독서지도교육론 영역에는 독서지도자로서 사서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독서지도사 자격증 등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었다. 이 두 영역 모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영역이지만 독서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변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 방법 현황

연구의 중심 접근방법으로 사용하는 연구방법을 토대로 볼 때 독서 분야의 논문은 대부분 단일의 연구 방법을 적용한다고 할 수 있다.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논문의 96%는 단일의 연구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연구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문헌연구방법으로 전체의 약 30%가 이 방법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조사연구방법을 적용한 논문도 26.2%로 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서비스 분야나 학교도서관 분야와 비교해 보면 독서 분야에서는 연구방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3)</sup>

그리고 실행연구(14.1%)와 실험연구(11.0)의 비율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프로그램과 독서치료에 대한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실행연구와 실험연구가 많은 것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행연구와 실험연구를 적용한 논문을 보면 독서프로그램 영역은 43편 중 12편, 독서치료 영역은 46편 중 24편으로 무척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서비스 분야나 학교도서관 분야와 비교해 보면 독서 연구 분야에서는 실험연구와 실행연구의 비중이 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sup>14)</sup> 독서 분야의 연구에서는 많은 연구가 실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로 이론적 연구의 성격을 지니는 독서론 영역은 대부분 문헌연구를 채택하고 있으며 독서치료 영역에서도 문헌 연구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치료 영역에서 일반 이론, 목록 개발, 연구동향 등의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3) 복합연구방법의 비중이 어린이서비스 분야에서는 11.6%, 학교도서관 분야에서는 14.5%로 나타났다. 김종성, "문헌정보학 분야 어린이서비스 ...," p.63; 김종성,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 p.84.

14) 실험연구와 실행연구의 비중은 어린이서비스 분야에서는 9.8%, 학교도서관 분야에서는 1.4%로 나타났다. 상계논문.

〈표 9〉 연구방법별 논문 현황

구분	연구방법	영역	독서론	독서자료	독서행태	독서프로그램	독서치료	독서진흥	독서운동	학교독서교육	독서평가	독서지도교육론	계	비율(%)
단일 방법	문헌연구		13	3	4	2	15	3	6	8	1	2	57	29.9
	조사연구		·	·	19	23	2	1	1	3	·	1	50	26.2
	내용분석연구		2	2	·	2	3	3	1	3	·	·	16	8.4
	사례연구		·	·	·	1	1	·	1	1	·	·	4	2.1
	실행연구		·	1	·	7	14	·	·	2	3	·	27	14.1
	실험연구		·	2	4	5	10	·	·	·	·	·	21	11.0
	온라인자료분석		·	·	·	2	·	2	3	·	1	1	9	4.7
복합 방법	문헌+조사연구		·	·	·	·	·	1	1	1	·	·	3	1.6
	문헌+사례연구		·	·	·	·	·	·	1	·	·	·	1	0.5
	문헌+내용분석연구		·	·	·	·	·	·	·	·	·	1	1	0.5
	사례+실행연구		·	·	·	1	1	·	·	·	·	·	2	1.0
계			15	8	27	43	46	10	14	18	5	5	191	100
비율(%)			7.9	4.2	14.1	22.5	24.1	5.2	7.3	9.4	2.6	2.6	100	

## IV. 발전을 위한 과제

### 1. 독서론 연구의 확대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 연구에서 독서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과 철학을 다루는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에 관한 방법과 전략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 연구의 비중이 무척 높은 것에 비해 독서에 대한 기본적인 탐구와 논의를 다룬 연구가 드문 것은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독서문화를 고양하고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과 전략도 기본적으로는 독서에 대한 철학적이며 역사적인 논의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의 방법을 탐색하기 이전에 그 일의 기본 방향과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일반적으로 독서론에서 포함하는 분야는 독서에 대한 철학적 논의, 독서의 역사,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의 독서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논문에서 이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 연구가 없진 않았다. 오래 전부터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다루어진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양과 주제의 범위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더욱 더 확대되고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독서에 대한 철학적 논의와 역사적 논의, 그리고 사회문화적 접근은 독서를 인문학의 토대로서 자리 잡게 하는 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며 독서를 사회적 현상의 할 갈래로서 다루어 사회 변화의 여러 국면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해 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독서의 역사를 다룬 윤금선의 논문들은 독서론 연구의 한 가지 좋은 사례를 보여준다고 할 만하다. 독서운동의 맥락에서 시대에 따른 독서의 사회사를 다룬 일련의 연구로서 우리 사회의 독서 역사를 잘 이해하게 해 준다.<sup>15)</sup> 윤금선의 논문들은 그 이전에 생산되었거나 다른 분야의 매체에 게재된 연구와 함께 우리 독서문화사를 통합적으로 재구성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토론과 추가 연구를 통해 우리 독서의 역사와 독서운동을 탐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과 역사적 시각으로 독서 문제를 통시적으로 엮어 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교육, 경제, 정치, 문화, 미디어 등 제반 사회 영역과 독서문화의 영향 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 줄 것이며, 도서관과 독서문화의 발전 과정을 풍부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상황의 변화 속에서 독서의 본질과 독서의 변화를 탐구하는 연구도 독서론에서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독서에 대한 요구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그것이 그 사회의 독서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독서 연구의 소임을 가지고 있는 학문 집단에서는 끊임없이 탐구하고 논의하여야 하는 과제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문헌정보학 영역에서 독서의 사회적 변화와 그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연구는 많지 않지만 몇몇 연구는 좋은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우선 1990년대 이후 확대되던 독서에 대한 관심이 교육 과정과 입시제도의 변화 등과 맞물리면서 사교육화 되는 현상을 탐구한 이연옥의 연구를 들 수 있다.<sup>16)</sup>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독서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날로 증대하고 있으나 사회의 공공영역에서 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사적 영역에서 거대한 독서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진단하면서 독서문화의 왜곡 현상을 경계하였다. 이와 같은 독서 사교육화 현상의 부작용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 이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독서의 사회학적 접근을 보여주는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독서 문제를 관련 영역의 변화와 환경 속에서 관찰하고 독서 사교육 현상의 부정적 측면들을 깊이 탐색하는 연구자의 안목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15) 윤금선, “독서 대중화 운동 연구: 196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7. 6), pp.271-294; 윤금선, “1990년대 초 독서 대중화 운동과 독서교육,”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1호(2008. 3), pp.377-407; 윤금선, “2000년대 독서운동과 독서경향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2008. 9), pp.267-297; 윤금선, “민족적 관점에서 본 경성도서관의 사회교육과 독서운동 실태 및 의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9. 6), pp.375-407.

16) 이연옥, “독서의 사교육화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3호(2004. 9), pp.41-63.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사회의 독서가 왜곡되는 현상을 검토하면서 좋은 독서 프로그램의 사례를 제안하는 김수경의 연구도 언급할 만하다.<sup>17)</sup> 이 연구에서 김수경은 독서교육이 그 목적의 왜곡, 폐쇄적인 독서 교과서, 독서대상의 제한 등의 문제를 표출하면서 왜곡되었다고 진단하고 즐거움, 자율성, 무상성을 지향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독서가 지나친 교육적 의도와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변질과 편협을 다양한 자료와 의견들을 토대로 비판하고 주체적이며 행복한 책읽기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독서문화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독서 문제에 대한 연구자의 성찰과 깊이 있는 탐구가 돋보이며 독서교육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제공하는 점에서 이 연구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독서가 교육과 학습의 동기로 인해 왜곡되는 상황이 건강한 독서문화를 저해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연구는 무척 소중한 작업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독서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상황과 연계될 때 학술 연구의 깊이와 지평이 더욱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일부의 논문처럼 독서의 가치와 본질, 그리고 사회문화적 상황을 탐구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연구들은 독서 연구의 성과를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독서의 사회적 위치를 튼튼하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지평을 넓혀 학문 발전과 위상 제고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독서 이슈의 연구 주도성 강화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 연구에서 독서 문제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논란이 일었던 주제나 토픽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독서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독서 문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서 연구에서 다루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토픽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회 독서 문화의 심연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으로 첨예한 이슈가 된 독서 문제에 대한 연구가 소홀하다는 것은 연구의 소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이후에만 해도 독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사례를 적지 않게 거론해 볼 수 있다. 2000년도 전반기에 독서능력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독서를 시험으로 평가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던 독서인증제와 학생들의 독서이력을 누적적으로 기록하여 입시에 반영하

17) 김수경, “독서의 본질과 독서 프로그램 운영,”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3호(2006. 9), pp.235-263.

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시작되었던 독서교육지원종합시스템(독서교육지원시스템) 등의 사례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 방송사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정된 책을 읽게 하고 독서퀴즈 대회를 열어 방송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계획을 발표하여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사례도 있다. 또한 군 장병들에게 특정한 책을 읽지 못하도록 불온도서로 지정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국방부 불온도서의 사례도 독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슈들은 하나같이 우리 사회의 독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으며, 동시에 독서를 진흥하고 독서문화를 발전시키려는 사회적 방법의 일면을 보여준다. 요컨대 독서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지적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독서문화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헌정보학의 독서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와 이슈에 대해 적절하게 참여하고 개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건강한 독서문화를 정립한다는 측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학문의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완수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이슈이고 주제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논문 중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독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다룬 연구가 몇 편 있다. 우선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적절한 시스템 설계를 제안하는 변우열의 연구와 경기도의 한 지역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독서인증제에 대해 보고한 유연이·강순애의 연구를 들 수 있다.<sup>18)</sup> 교육 현장과 독서교육 당국에서 중요하게 추진하는 독서 정책의 한 부분인 독서운동을 전개하는 시민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독서지원시스템과 독서인증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하게 된다. 이 연구들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진흥하고 학교의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제도를 인식하고 있으며 그 실제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제도가 사회적인 논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연구는 필요하고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독서지원시스템으로 인해 ‘독서는 암기와 시험이 되어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교육의 정의적인 측면이 배제되어 독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sup>19)</sup>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그 배경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독서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이슈를 포괄하여 더욱 더 비판적으로 검토한 한 논문을 통해 이런 연구의 중요성을 잘 확인할 수 있다. 독서인증제, 독서교육지원시스템, 권장도서목록 등을 포함하여 학교 독서교육 정책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여 대안을 도출한 이연옥의 연구는

18) 변우열,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의 구성요소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10. 3), pp.295-318; 유연이·강순애, “경기도 가평지역 초등학교 도서관의 독서인증제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3권, 제1호(2012. 3), pp.235-255.

19) 변우열, 전계논문, p.317.

독서운동을 전개하는 시민사회에서 논의되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으며 문헌정보학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좋은 연구의 사례를 보여 준다.<sup>20)</sup>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독서교육 문제의 핵심을 예리하게 정리하고 있어 학교 독서교육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 당국자, 시민사회, 학교 현장 등의 관계자들에게 좋은 참조가 될 만하다고 평가한다. 또한 문헌정보학이 독서 문제와 관련 있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독서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인 활동이나 발언에서 충분한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부차적인 유익도 적지 않은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복잡한 문제로 대두되는 정책에 대해 문헌정보학의 독서 연구 영역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이며 활발한 참여를 통해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나아가 학문의 입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3. 연구 방법론의 적실성 제고

앞서 살펴본 연구방법 현황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단일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나타났다. 하지만 독서 영역의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연구방법은 정량적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연구, 실험연구, 실행연구 등을 적용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독서프로그램과 독서치료를 다룬 연구가 가장 많은 현실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와 만족도를 평가하는 연구의 논리적 구조상 정량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접근 방법은 문제가 없는가? 정량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 내용을 다루는 것이 연구 문제를 충분히 부각시키고 결과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데 무리는 없는 것인가? 개별 논문에서 채택하는 연구방법과 접근 전략의 타당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독서 연구에서 적용되는 정량적 접근법은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독서프로그램이나 독서치료의 성과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서 주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참여자의 의견을 수량화하여 결과를 제시하거나 독서실태를 조사하여 수치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독서의 선호도나 행태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의 경우 그 정량적인 데이터가 과연 얼마나 사실적으로 독서의 효과나 실태를 보여줄 수 있을 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정량적인 데이터를 중요시하는 모든 분야의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독서라는 영역의 특성을 생각하면 이런 문제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독서 의욕이 고취되었다거나, 독서 태도가 바뀌었다고 할 때, 혹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의 문제가 개선되었거나 새로운 이해가 생겼다고 할 때 그 상태나 정

20) 이연옥, “학교 독서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3호(2006. 9), pp.209-234.

도를 수량화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한 연구들은 대체로 기계적인 구조와 논리를 강하게 노출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결과를 미리 정해 두고 프로그램의 과정을 맞추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독서치료에서 짧은 기간에 몇 권의 책을 읽고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하는 실행연구의 경우 그 프로그램에 대해 신뢰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마음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황금숙이 언급하였듯이 ‘독서치료는 단 시일에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없으므로 충분한 시간과 풍부한 독서자료로 구체적인 독서치료 지도안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만 효과적인 독서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sup>21)</sup>이라고 한다면 연구를 위한 규격화된 프로그램은 진정한 의미의 독서치료로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독서라는 주제의 성격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독서는 기본적으로 내면의 활동이며 개별화되어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독서 활동을 규격화, 정량화, 객관화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독서 문제의 깊은 부분을 표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독서 문제를 연구할 때는 더욱 더 다양한 접근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복합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령 독서치료의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양적 데이터와 함께 질적 데이터를 같이 활용하여 결과를 보여 주는 것이다. 독서프로그램 참가자의 만족도와 프로그램 효과를 측정하는 경우에도 양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연성 데이터도 같이 활용하여 그 효과와 한계를 좀 더 실제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독서 연구의 많은 사례들이 연구자의 축적된 문제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조롭고 획일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연구 성과의 집적을 방해하는 배경이 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적실성 있는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민과 실천은 무척 중요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노력을 통해 기계적이고 단선적인 구조의 연구를 넘어서 연구자의 의식이 반영된 깊이 있는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연구방법론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통해 독서 연구의 성과를 더욱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장과 이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의 관행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독서연구의 발전을 위한 과제는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중요한 한 가지는 독서 자료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건강한 독서는 방법이나 기술에 의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양질의 독서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서 자료로서 다양한 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런 연구의 성과를 통해 도서관의 장서를 충실하게 만들어 독서 자원의 기반을 풍부하게 조성하는 전략으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독서 자료에 대한 연구의 과제는 학교도서관과 어린이서비스의 연구 영역에서도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강조된 바 있다.<sup>22)</sup>

21) 황금숙, 전계논문, p.128.

22) 김종성, “문헌정보학 분야 어린이서비스 …,” pp.64-66; 김종성,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 pp.84-85.

## V. 결론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문헌정보학분야 3개 학회지에 창간호부터 2012년까지 게재된 191건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학회지, 연도, 연구자, 연구방법, 주제, 연구비 등에 따라 연구의 현황과 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독서 연구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2003년 이후 독서 연구가 크게 늘었으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를 통해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 연구가 크게 늘어난 시점은 학교도서관이나 어린이서비스 등 관련 분야의 연구가 늘어난 시점과 맞물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시기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서비스와 독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그에 대한 도서관계와 학계의 대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를 연구하는 연구자는 무척 다양하고 활발하게 새로운 연구 인력이 충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런 중에도 연구를 이끌어가는 그룹이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더욱 더 다양한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에 의해 독서 연구가 풍성해 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연구기반에 의한 연구 현황을 보면 연구비 중에서는 대학교 내부연구비를 지원 받은 논문이 가장 많았으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도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주제별로 보면 독서프로그램과 독서치료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의 효과나 만족도, 독서치료프로그램의 사례 연구 등이 가장 많은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연구주제의 경향은 연구방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연구와 조사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다른 연구 분야와 마찬가지로지만 실험연구와 실험연구의 비중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것은 독서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만하다.

독서 연구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연구 경향과 관행을 통해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였다. 우선 독서의 철학과 역사적 논의를 다루고 사회문화적 변화와 연계하여 독서를 다루는 독서론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 상황과 관련하여 독서의 건강한 방향을 탐색하고 독서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독서론에 대한 연구가 더욱 더 확대되고 심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독서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와 과제에 더욱 더 민감하게 접근하고 연구를 활성화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독서교육이나 독서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나 논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의 과제로 다루고 건강한 독서문화가 정립되도록 기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독서 영역에서 문헌정보학의 입지를 확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독서라는 주제의 성격에 맞는 연구방법론의 탐구도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획

일적이고 단조로운 연구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을 탈피하여 연구 주제와 테마에 적합한 관점과 연구 방법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통해 독서 연구의 역량이 확대될 것이고 이론과 현장을 견인하는 연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여 독서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많은 후속연구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학술 논문 이외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포괄하는 연구를 통해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연구의 전체 지형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독서라는 주제가 문헌정보학뿐만 아니라 교육학, 국어교육학, 문학, 아동학 등의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수행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독서 연구와 비교하여 통합적인 독서 연구의 경향을 탐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외국의 독서 연구 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국가 간 독서 연구의 경향을 비교 분석하고 그 사회적 맥락과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공정자. “문헌정보학 분야의 어린이 서비스 관련 연구경향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3호(2011. 8), pp.303-325.
- 김수경. “독서의 본질과 독서 프로그램 운영.”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3호(2006. 9), pp.235-263.
- 김정현. “한국의 자료조직 분야 연구동향: 1970~20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11. 9), pp.149-164.
- 김종성. “문헌정보학 분야 어린이서비스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제2호(2013. 6), pp.51-75.
- 김종성.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2호(2013. 6), pp.71-91.
- 김관준. “저자 프로파일링 기법을 이용한 국내 독서 연구 영역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2권, 제4호(2011. 12), pp.21-44.
- 변우열.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의 구성요소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10. 3), pp.295-318.
- 변희균. “키워드 프로파일링을 통한 분야별 국내독서 연구방향 분석.” 한국독서교육학회지, 제1권, 제1호(2013. 6), pp.51-66.
- 설문원. “기록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2권, 제3호(2012. 9), pp.203-232.

- 송현숙. “〈신년기획-대학입시 현장보고서 2013〉 대입 논술시험의 역사.” 경향신문, 2013. 1. 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82212355&code=21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82212355&code=210100)> [인용 2013. 8. 7].
- 유연이, 강순애. “경기도 가평지역 초등학교 도서관의 독서인증제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3권, 제1호(2012. 3), pp.235-255.
- 윤금선. “민족적 관점에서 본 경성도서관의 사회교육과 독서운동 실태 및 의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9. 6), pp.375-407.
- 윤금선. “1990년대 초 독서 대중화 운동과 독서교육.”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1호(2008. 3), pp.377-407.
- 윤금선. “2000년대 독서운동과 독서경향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2008. 9), pp.267-297.
- 윤금선. “독서 대중화 운동 연구: 196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7. 6), pp.271-294.
- 윤희윤. “한국 도서관경영 연구의 성과와 한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11. 9), pp.25-44.
- 이소연. “국내 전자기록 연구의 동향 분석: 회고와 전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2011. 6), pp.8-31.
- 이연옥. “독서의 사교육화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3호(2004. 9), pp.41-63.
- 이연옥. “학교 독서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3호(2006. 9), pp.209-234.
- 정재영, 박진희.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장연구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2호(2011. 6), pp.171-191.
- 최재희. “국내의 기록물 평가론 연구 동향: 회고와 전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1호(2011. 3), pp.7-22.
- 한복희. “이용자 연구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도서관학, 제23권(1992), pp.107-125.
- 황금숙. “국내 독서치료 연구동향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5. 3), pp.117-130.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yeon, Hoi-Kyun. "A Study on the Analysis of Reading Research Trends in Korea Using Keyword Profiling." *Journal of the Reading Education Society*, Vol.1, No.3(2013), pp.51-66.
- Byun, Woo-Yeoul. "A Study on the Components of Web-Based Reading Education System."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1, No.1(2010), pp.295-318.
- Choi, Jae-Hee. "Research Trends in Archival Appraisal Science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ol.11, No.1(2011), pp.7-22.
- Chung, Jae-Young, Park, Jin-Hee. "Analysis of the Trends in the Field Studie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2, No.4(2011), pp.171-191.
- Hahn, Bock-Hee. "An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 on the Information User Stud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3(1992), pp.107-125.
- Hoang, Gum-Sook.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Bibliotherapy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6, No.1(2005), pp.117-130.
- Kim, Jeong-Hyen.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Resource Organization in Korea: 1970-2010."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2, No.3(2011), pp.149-164.
- Kim, Jong-Sung. "Trends Analysis of Children's Services Research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4, No.2(2013), pp.51-75.
- Kim, Jong-Sung. "Trends Analysis of School Library Research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4, No.2(2013), pp.71-91.
- Kim, Pan-Jun. "Domain Analysis of Reading Research in Korea Using Author Profiling."



- Journal of the Korea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2, No.4(2011), pp.21-44.
- Kim, Soo-Kyoung. "The True Meaning of Reading and Operation of Reading Program."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7, No.3(2006). pp.235-263.
- Kong, Jeong-Ja. "Analysis for the Tendency to Study Children's Service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ocused on Masters and Doctoral Theses Submitted from 1981 to 201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5, No.3(2011), pp.303-325.
- Lee, So-Yeon. "Trends Analysis of Electronic Records and Archives Research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ol.11, No.2(2011), pp.8-31.
- Lee, Yeon-Ok. "A Critical Study on School Reading Instruction Polic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7, No.3(2006). pp.209-234.
- Lee, Yeon-Ok. "A Study on the Social Problems of the Private Education of Reading."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5, No.3(2004). pp.41-63.
- Ryu, Yeon-Yi & Kang, Soon-Ae.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Reading Certification System by Elementary School Libraries in Gapyeong, Gyeonggi-do." *Journal of the Korea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3, No.1(2012), pp.235-255.
- Seol, Moon-Won. "Research Trends and Issues of Records and Archives Classific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ol.12, No.3(2012), pp.203-232.
- Song, Yyun-Sook. "A History of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The Kyunghyang Shinmun, 2013. 1. 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82212355&code=21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82212355&code=210100)> [cited 2013. 8. 7].
- Yeun, Keum-Sun. "A Study on Reading Movement and Readers' Interest in the Period of 2000'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9, No.3(2008), pp.267-297.
- Yeun, Keum-Sun. "A Study on Reading Popularization Movement and Reading Education

in the Early Period of 1990'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9, No.1(2008), pp.377-407.

Yeun, Keum-Sun. "A Study on Reading Popularization Movement: Focus in 1960'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8, No.2(2007), pp.271-294.

Yeun, Keum-Sun. "A Study on Social Education, Reading Movement and Meaning of the Gyeongseong Library Which Observe From Ethnic Viewpoi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0, No.2(2009), pp.375-407.

Yoon, Hee-Yoon. "Outcomes and Limitations of the Library Management Research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2, No.3(2011), pp.25-44.